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노도쳐나가는 우리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선군조선의 백승의 신화는 영원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전쟁과 평화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 땅에 흐르는 분분초초를 극도의 초긴장속에 몰아넣었던 또 한차례의 준엄한 판가리대결전이 선군조선의 승리로 결속되어가고있다.

지난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이 사상최대규모로 감행한 《키리졸브》, 《독수리 16》이라는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악랄한 《제재》소동에 우리 식의 담대하고 파격적인 초강경대응조치들로 맞받아나기며 분별을 잃고 날뛰는 적들을 헤쳐낼수 없는 공포와 불안, 혼란과 궁지에 몰아넣은 최근 수십일간의 《세기적대결》은 내외의 비상한 주목을 끌었으며 그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와 정당당당하고 합법적인 인공위성발사를 결코 벌린 전대미문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소동, 그와 때를 맞추어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간판마저 벗어던지고 강행된 합동군사연습은 투입된 병력과 수단들의 규모로 보나 도발적인 성격과 군사적강도로 보나 론박할수 없는 북침핵전쟁이었다.

주권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는 침략전쟁의 서막이며 최종완성된 작전계획의 공개는 실전진입에 대한 포고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고 그 진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세력이 란무하는 속에서 단신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에 맞서야 했던 우리를 지금껏 세계는 숨죽이고 지켜보아왔다.

하지만 가스로운 전쟁소동은 어떻게 결판났으며 누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누가 패전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는가.

우리는 분별없이 날뛰는 원수들의 정수리를 다시금 호되게 후려치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패승의 지평을 열고 이 땅에서 자주, 평화, 번영의 봄을 지켜나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억척불변의 자주적의지와 신념, 자위적힘의 실체와 위력이 다시한번 뚜렷이 검증되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오직 우리자신의 힘으로 불의한 군사적강권과 핵전쟁위협을 단호히 제압하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세계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그어놓은 격동적인 나날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당당한 핵강국의 자격과 권리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극단에 이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위협에 대응하여 나라의 핵공격능력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해놓은 오늘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더는 땀방울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강탈하려 날뛰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경거망동은 우리에게 핵무력의 질량적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미국과 피뢰패당은 방대한 규모의 핵전쟁연습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켓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명령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잔학무도한 《참수작전》까지 꾸리짐없이 공개하고 시도하는 극단적인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적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까지 겨냥하며 피눈이 되어 덩벼드는 조건에서 이를 제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우리 공화국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우리는 오만무례한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북침핵전쟁도발에 정면으로 맞서 아직 세상이 제눈으로 본적이 없는 표준화, 규격화가 실현

된 우리 식의 소형핵탄두를 자력으로 만들고 전격 공개한데 이어 탄도로켓 전투부침투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고체로켓 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립속 성공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끝까지 맞서나갈 굳건한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비롯한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벽한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한 중대사변으로 된다.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례없는 핵전쟁위협에 결코 주저하거나 무릎꿇지는커녕 나라의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는 과감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그 위력이 현실로 증명되자 바빠난것은 도발자들 자신이었다. 백악관과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고 새로운 탄도로켓기술을 과시할 때마다 혼잡하여 그 무슨 대책론이니 뭐니 하고 법석 소동을 일으키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것에 불과하였으며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실책을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불장을 다 보고 칠것은 다 쥐였으며 미국의 핵우세와 핵패권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어제는 우리를 핵무장의 길로 떠밀고 그것도 부족하여 핵능력과도화를 위한 친금같은 기회까지 마련해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앞으로 우리의 핵보유에 대해 결코들수록 그 《원인제공자》, 《동력제공자》의 감투만을 더 깊숙이 뒤집어쓰게 될것이다.

지난날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생존권과 존엄사수를 위해 부득불 피어린 핵보유의 길을 개척해왔지만 이제는 누가 간절히 바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수는 없게 되어있다.

핵은 선군조선의 상징이고 존엄이며 자주이고 생명이다.

아직까지 지구상 그 어느 핵보유국도 핵을 스스로 포기한 전례가 없으며 그렇게 쉽사리 내려놓을바에는 애당초 그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험난한 핵보유의 길을 걸어오지도 않았을것이다.

세계에 대한 핵공갈위협을 공공연히 해대는 미국이 우리에게만 무슨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핵을 내려놓으라고 강박하는것은 극도로 후안무치하고 날강도적인 처사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와 침략위협이 핵공갈과 함께 지속되는 한, 이 지구상에서 불의와 악의 화근인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이미 틀어친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서슬푸르게 버려갈것이며 자주도 정의도 핵으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2.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체 인민이 복된 삶을 향유하는 우리 식 경제강국의 눈부신 용자가 확연해지고있는 오늘 미국과 피뢰패당은 그 무슨 《제재》와 《봉쇄》의 효과에 대해 망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이 류레없는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가 조작되자 때를 기다린듯이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에 돌입한데는 우리에게 대한 정치경제적압박과 군사적위협을 극대화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앞길을 막아보려는 비렬한 속심이 깔려있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들은 합동군사연습에 《무리하게 대응하

려면 경제목표달성에 차질이 빚어질수밖에 없을것》이라느니, 《대북제재로 북비행대들의 출동이 어려울것》이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케변을 늘어놓으며 히스테리적광기로 우리를 거듭 자극하고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가며 무모하게 발광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이 《제재》나발에 피대를 돌리고 대규모의 북침핵전쟁도발에 날뛰수록 피끓는 적개심과 보복열기를 총분출시켜 경제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높여 지퍼올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장쾌한 포성이 높이 울리는 속에 자력자강의 위대한 힘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어 적들의 면상을 호되게 쳐갈겼다.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얼마나 효력을 내는지 지켜보겠다고 위성을 비롯한 각이한 정찰수단으로 사진을 찍어댄다. 그 무슨 《물가변 조사》한다 하며 매일같이 분주랑을 피워댔지만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우리에 대해 《제재》를 떠드는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첨단문명의 상징인 려명거리가 세상이 보란듯이 소리치며 일떠서고 우리 상품이 꼭 들어찬 현대적인 봉사기자들이 문을 열는가 하면 민들레학습장공장과 지방의 애육원, 육아원들이 완공되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 활짝 꽃피울수 있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주체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용을 쓰며 일어날 때 백두청춘들은 그토록 엄혹한 자연의 횡포도 물리치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넘달이나 앞당겨 끝내는 대기적을 창조하여 세상을 다시한번 놀래웠다.

오죽하였으면 적들조차 《북의 주민생활이 안정되어있다》, 《제재와 군사적긴장속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것이 놀랍다》, 《내부 혼란과 물가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이 뒤집혀 아우성쳐대고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제재》와 《봉쇄》를 우리의 생존을 가로막을 마지막 《무기》로 내들고있지만 이야말로 가물에 바닷물이 마르기를 바라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나라의 경제발전도 인민생활향상도 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병진로선에 토대된 불패의 자강력으로 이루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케케묵은 《제재》나 《봉쇄》타령이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과 피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재》놀음은 스스로 제 목을 감아죄는 울가미로 될것이며 이 땅에 솟아오를 경제강국의 용자와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에서 저들이 얼마나 오래동안 어리석고 비렬한짓에 매달려왔는가를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3.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와의 대결에 매달릴수록 차례질것이란 패배자의 오명과 수치뿐이며 선군조선의 백승의 신화는 영원하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려량상 대비도 안되는 이번 대결전에서 헤쳐낼수 없는 수세에 몰리고 분분초초를 무서운 공포속에 보낸것은 우리가 아니라 《참수작전》이니, 《족집게식타격》이니 하고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던 적들 자신이다.

우리가 적들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초강도의 군사적조치들을 립속 취해나가자 미국과 피뢰패당은 완전히 얼흔이 나가 허둥지둥하며 저들의 취약성과 한계를 세계의 면전에서 날이 드러내놓았다.

지금 미고위층에서 우리 공화국을 《전략적

경쟁자》, 《강력한 핵적수》,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고 지목하며 패배를 자인하는 비명소리가 련일 울려나오는것은 참으로 가슴후련한 승전보이다.

그 무슨 《응징》과 《제재》로 우리의 《핵개발을 지지》시켜보겠다고 거거품을 물고 발악하던 박근혜패당이 살길을 찾겠다고 매일같이 상전에게 빌붙고있는가 하면 염전의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피뢰군 사병들속에서는 탈영과 자살이 떼지어 일어나 호전광들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얼마나 급하였으면 피뢰군부것들이 사병들에게 《특별로휴가》요, 《위문공연》이요, 《격려메세지》요 하듯하듯 그 무슨 《피로회복》을 한다고 북풍을 한껏 두드려대게 하는 해피한 놀음까지 고안해내어 만사일을 웃기였는가.

결국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내외에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며 시작하였던 핵전쟁연습이라 그것은 그 첫막도 변변히 울려보지 못한채 룡두사미로 끝나버렸으며 우리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패의 법칙은 절대로 변할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었다.

그토록 치렬했던 전대미문의 대결전에서 이룩한 승리와 기적은 백두산절세위인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눈물겨운 노력과 불면불휴의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총첩될수록 더욱 굳건한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버리시며 세인을 놀래우는 과감한 중대결단을 시기적절하게 내리시어 남들이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하는 국가적대업들을 단 수십일동안에 다계단으로 이루어내시고 인민의 숙원을 풀어주시었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국력강화를 위한 모든 중대사업들을 직접 구상하시고 진두지휘하시며 나라의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달려신 불철주야의 그 로고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의 국력이 세계최정상에 솟구쳐올랐다.

그이의 천재적인 지략과 무변담대한 기상, 애국애민의 불타는 열정과 과학적이고 결출한 령도는 지구상의 모든 정치지도자들과 국가령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책임지고 지켜야 하며 인류의 정의와 진리는 어떻게 수호해나가야 하는가를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준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은 아직도 계속되고있으며 최후승리에로의 려정은 험난하다.

미국과 피뢰패당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회떠운 망발을 꾸러짐없이 내뱉고있다.

이러한 물지각하고 뽀수없는 반공화국대결망동이 불려올것은 더욱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의 불세뿐이다.

지금껏 실현불가능한 반공화국침략야망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고 광분하여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전쟁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선택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미국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핵에 대하여 계속 무지하게 끌고들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악화의 화근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북침전쟁연습부터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시며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치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하며 그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승리의 축포속에 열린 뜻깊은 당대회

화창한 5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70여년의 력사에 일곱번째의 년륜을 새기며 성대히 진행되는 당대회를 맞는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끝없는 격동과 환희, 기쁨에 설레이고있다. 이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제재》와 압살의 광풍을 물리치며 영광의 언덕에 올라선 위대한 인민만이 맛볼수 있는 승리자의 쾌감이며 그 언덕에서 바라보는 휘황한 미래에 대한 이름할수 없는 희열이다.

하다면 오늘의 이 장엄한 승리, 인민의 대거사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강인담대한 배짱과 강철의 의지, 비법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며 이 땅위에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최근 공화국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예고하는 수많은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됨으로써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핵무기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친 공화국은 련이어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 고체로켓발동기시험출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을 비롯한 거대한 사변들을 련속적으로 안아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율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조선의 핵과 수소탄은 미국이나 로씨야의 개발

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개발된 최첨단핵탄이다.》, 《단한방으로 미국의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같은 대도시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종화, 정밀화, 고성능화된 탄도로켓들에 대해서는 《새기탄과 유도기능, 핵탄두 탑재기술까지 갖춘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성공률을 보일 정도의 완벽한 도사급》이라고 평하였다.

이로써 공화국은 미국이 저들만의 독점물이라고 하는 핵선제공격수단들을 다 가진 핵무기보유국, 수소탄보유국이 되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부시고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인 사랑하는 조국땅에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

지도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이 땅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계신다.

온 나라 도처에서 지식경제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이 일떠서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가 실현되며 생산적양양이 일어났으며 자강의 힘으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지하전동차가 땅속을 달리는 자랑찬 화폭이 펼쳐졌다. 과학중시정책이 빛나게 구현되어 위성과과학자주래지구와 은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고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과일향기가 차넘치고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고 울려나오고 동화속의 궁전같은 애육원, 육아원, 소년단아영소, 소년궁전들에서 나라의 왕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

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세계여론은 조선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속에서도 자강력에 기초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리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데 대하여 《지난 시기 상상할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은 강성국가건설이라는 자기의 목표가 결코 리상이 아니라 현실로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전도에 대해 락관을 표시하고있다. 특히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남들같은 몇년 지어 1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특대형건설공사들도 몇달정도나 길어서 1년 안에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하고 있는것은 《김정은시대의 발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승리와 기적의

동장훈이 울릴 때마다 제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것은 역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원수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벌어졌다. 정초에 세계를 진감시킨 수소탄리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발사에 필집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질식시키보려고 압살의 광풍을 몰아왔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더욱 빛나시기 위해 70일전투를 조직하시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그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전군을 전투에서 지휘하시는 그 날날 현지에 나오시어 려명

거리건설을 선포하시었다.

려명거리건설작공의 첫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칙로 원수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뚱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꽃자고 하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할수 있었다. 그 확신은 곧 이 나라 천만군민을 비상한 창조와 혁신의 투쟁으로 불리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으로 되어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였으며 청년강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되는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길, 영광넘친 길을 돌아보며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말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이만 계시면 우리는 잘 살수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이며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억척불변의 맹세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아직 그 누구도 가져본적이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성대히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공화국의 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력사적인 대회로 될것이다.

승리와 영광의 환희로운 축포속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 대회를 기점으로 공화국은 더 높이 비약하며 강국으로의 지름길을 정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은 나라가 명절일색이다. 모든 사람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여 기쁨에 넘쳐있는것이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모습으로 자리잡고있는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세계의 정당력사가 350여년을 헤아리고 오늘날 형형색색의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지만 어머니당으로 천만대중의 절대적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은 조선로동당뿐이다.

70여년전 당마크에 마치고와 낫, 붓을 새기고 근로하는 인민의 당으로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온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자기 활동에 구현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이다.

《어머니의 젖만 가지고는 한 자식도 먹여살리기 어렵지만 당의 품이 있고 사회주의제도가 있기때문에 세상동자들은 아무런 걱정없이 무럭무럭 성장하고있다. 실제상 세상동자들은 어머니의 젖줄기에 앞서 우리 당의 사랑의 젖줄기를 빨며 자라는 행복동들이이다.》

세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난 평양산원 의료인원들의 말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어나는것을 나라가 훗날 징조라고 하며 모든 보육조건, 교육조건 등 온갖 혜택을 돌리는 당과 국가의 무상치료, 무료교육시책에 대한 고마움의 토로이다.

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손길과 보살핌은 그늘진 곳, 구석진 곳이 없지 다 미치고 있다.

세해전 1월 중산군 주민들이 서해의 날바다에서 표류하다 구원될수 있는것도 사경에 처한 운명을 위하여 구조조치

5 월 의 환 희

를 취한 조선로동당의 은정어린 손길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조개잡이를 위하여 바다에 나갔던 사람들이 뜻밖의 일로 방향을 잃고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 얼음장에 실려 망망대해에서 헤매고있을 때 온 나라 인민을 보살피는 당에서는 제때에 긴급구조대책을 세웠다. 군대, 주민들모두가 펼쳐나섰고 인민군대 공군부대에 비상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로 출격한 비행사들은 비행에 비행을 거듭한 끝에 바다에서 헤매던 주민들을 모두 구원하였다. 강추위로 전신동상과 쇼크상태에 처한 그들을 위하여 인민군부대에서 구급조치가 취해지

고 중산군인민병원에서는 긴급후송된 환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전신보온과 항소크, 항감염, 호흡개선 등 성실성의 종합적인 치료를 다하여 환자들은 완전회복되게 되었다. 지난해 여름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시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일시에 가당고 피해복구투가 불철주야로 진행되어 불과 30여일만에 복구되어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되찾고 피해지역이 사회주의의 새 선경으로 몰라보게 변모되게 된것도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관점과 립장이다. 새로 건설된 평양의 창건거리 살림집들을 방문하시였을 때 집주인들과 담소하시며 생활조건과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는 로인에게 앓지 말고 건강하여 로동당시대에 장수하라 고 따듯이 축복하신 원수님이시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는 로동당의 구호에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경률과당의 목소리가 담겨져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철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의도이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최고의 속도로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오늘의 모든 전변과 기적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현대건축의 기층, 산업시설의 표본,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사회주의문명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자랑찬 현실은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의 결실이다.

이 땅에 넘치는 5월의 환희는 고마운 어머니당을 칭송하는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찬가이며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이다.

리경복

꽃주단을 펴주고싶다 하시며

몇해전 온 나라 인민들이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최고있는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었다.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이고 훌륭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고있는 로동자들을 치하하신 그이께서는 공장구내에 있는 문화후생시설에 들리시었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면 정말 좋아하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공장을 찾아주시였으며 이 공장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였는데 자신께서도 똑같다고, 이 공장은 정말 특별히 애착이 가고 계속 보고싶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올 때마다 저절로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시고 자신께 넘겨주신 우리 로동계급인데 이 공장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펴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지난 1월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진 공장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건설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로정을 돌이켜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한번 나와보시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장군님을 한번 모시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인기가 나날이 높아 가고있다고 하시며 비결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어느 한순간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한데 있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꽃향기에 과일향기 실려온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끝내없이 펼쳐진 사과나무들에 꽃들이 활짝 폈다. 그 꽃들을 보며 크고 맛있는 사과들이 주렁주렁 풍요로운 가을풍경을 그려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웃음꽃이 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지금 원흥땅에 펼쳐진 사과꽃바다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못 잊을 추억을 더욱 불러일으켜준다.

사과꽃 피워 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장군님 목매어 부르는 온 나라 아들딸들
오늘도 사무친 그리움 아 썩이 없네
...

한평생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깎아내린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노래이다.

사과꽃 만발한 봄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을 위하여 기울으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어련다.

함경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과라고 하면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좋아하는 과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것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에서 로획한 얼마 안되는 조선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어 애국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과수농장건설을 발기하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이 땅에서 과수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를 찾고 또 찾으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

한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시고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의 높은 목표도 제시하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철령아래 사과바다》가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사과꽃향기이고 사과열매향기이고, 우리는 그 향기를 가슴에 정히 품어안아야 하며 고산땅이 꺼지게 해마다 사과풍년을 안아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령도가 있어 이 땅에는 사과향기, 과일향기가 한껏 풍기게 되였다.
불과 몇년사이에 고산과수종합농장이 청춘과원으로 전변되어 철령아래 사과바다 펼쳐지게 되였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호뭇한 과일대풍을 안아왔다.
지난해 8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의 사과를 알알이 골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홀리신 인민사랑의 고귀한 땀방울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 뜻깊은 올해에 과일대풍이 들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날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흥할 징조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사과향기, 과일향기가 어떻게 오는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이루어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청춘과원에 만발한 봄날의 사과꽃향기에서 호합된 열매 주렁주렁 풍요한 가을날의 과일향기가 실려온다.
본사기자 주일봉

합정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과라고 하면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좋아하는 과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것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에서 로획한 얼마 안되는 조선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어 애국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과수농장건설을 발기하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이 땅에서 과수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를 찾고 또 찾으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과라고 하면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좋아하는 과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것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에서 로획한 얼마 안되는 조선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어 애국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과수농장건설을 발기하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이 땅에서 과수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를 찾고 또 찾으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

합정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합정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과라고 하면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좋아하는 과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것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에서 로획한 얼마 안되는 조선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어 애국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과수농장건설을 발기하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이 땅에서 과수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를 찾고 또 찾으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

합정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사과라고 하면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좋아하는 과일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것처럼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에서 로획한 얼마 안되는 조선사과를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게 보내주시어 애국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과수농장건설을 발기하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이 땅에서 과수업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의 과일생산기지를 찾고 또 찾으시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이 땅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두해전 어느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이 농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 애민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

합정남도 북청의 룡전과수농장과 덕성의 덕성과수농장,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황해남도 과일군 등 온 나라 과원마다에 인민들에게 과일이 풍성

한정 차려지게 하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3년동안에 만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3차례나 찾으시여 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민들레라고 하면 한편의 노래구절이 떠오른다.
민들레 곁에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뉘눌던 그 시절...
어린 시절 하얀 연을 띄우던 고향의 언덕에 피어나던 민들레 들꽃이다. 동심과 잘 어울리고 동심의 맛이 짙은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공장이 있으니 그곳은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장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학습장공장을 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국가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이 그대로 어려오는 공장을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시였다.
그날 그이께서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시였으면 좋겠는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였다고 가슴속 격정을 터놓으시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많이 안겨주고픈 마음 얼마나 간절하시였으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으로 훌륭한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이르시였는가.
국가의 중대사를 책임진 령도자에게 있어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리용하는 학습장생산은 너무나 작은 문제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습장생산문제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

시였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시는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가 만든 훌륭한 학습장들을 아이들과 학생들이 리용하면서 가슴마다에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공장은 많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기업들의 리용추구를 위한것이고 순수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장은 없다.
지금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소동을 자강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다. 한편의 자금과 한g의 자재도 귀한 때에 한해에 5 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여 전국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풍족히 공급해줄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은 미래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버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모두 풀어주겠다고는 은정깊은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갖 해방된 나라에 민주의 터전을 세워가던 그때 한푼한푼의 자금이 귀했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리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다.
미국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어 재가루만 날리던 전후 그 어려운 때에도 몸소 내각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

시였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시는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가 만든 훌륭한 학습장들을 아이들과 학생들이 리용하면서 가슴마다에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공장은 많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기업들의 리용추구를 위한것이고 순수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공장은 없다.
지금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착한 《제재》소동을 자강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다. 한편의 자금과 한g의 자재도 귀한 때에 한해에 5 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여 전국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풍족히 공급해줄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은 미래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성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버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모두 풀어주겠다고는 은정깊은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갖 해방된 나라에 민주의 터전을 세워가던 그때 한푼한푼의 자금이 귀했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리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시였다.
미국이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어 재가루만 날리던 전후 그 어려운 때에도 몸소 내각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

해주는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이것은 입은 문제해결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선언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1990년대중엽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 한토리의 실, 한통구리의 천이 귀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교조분별, 나이별특성에 맞게 교복을 더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도록 그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2011년 5월에는 평양수지 연필공장을 찾으시여 학생소년들이 쓰는 수지연필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만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처럼 어렵고 험겨운 속에서도 언제나 후대들의 얼굴엔 자그마한 그늘도 비끼지 않도록 마음쓰시며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뜻과 정수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제재》와 압살의 광풍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만 가고있다.

새 학기를 맞으며 산뜻한 교복을 차려입고 질 좋고 문양고운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오늘은 민들레학습장을 가슴 가득 받아들게 되었다.
춤노래 펼치는 궁전도 세상에서 최고, 야영의 나날을 재미있게 보내는 야영소도 세상에서 으뜸, 자강력으로 만들고있는 가방과 매일 책상위에 펼쳐지는 학습장도 제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 주신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되는 학습장은 학생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 가당겨 된다.
그 학습장에 아름다운 리상의 무지개를 그리고 휘황한 포부의 설개도를 그리며 이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미래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해주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이것은 입은 문제해결에서 하나의 혁명이라고 선언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시는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가.
1990년대중엽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 한토리의 실, 한통구리의 천이 귀하였지만 그이께서는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교조분별, 나이별특성에 맞게 교복을 더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주도록 그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2011년 5월에는 평양수지 연필공장을 찾으시여 학생소년들이 쓰는 수지연필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만들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처럼 어렵고 험겨운 속에서도 언제나 후대들의 얼굴엔 자그마한 그늘도 비끼지 않도록 마음쓰시며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뜻과 정수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에서는 《제재》와 압살의 광풍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만 가고있다.

새 학기를 맞으며 산뜻한 교복을 차려입고 질 좋고 문양고운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오늘은 민들레학습장을 가슴 가득 받아들게 되었다.
춤노래 펼치는 궁전도 세상에서 최고, 야영의 나날을 재미있게 보내는 야영소도 세상에서 으뜸, 자강력으로 만들고있는 가방과 매일 책상위에 펼쳐지는 학습장도 제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 주신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되는 학습장은 학생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 가당겨 된다.
그 학습장에 아름다운 리상의 무지개를 그리고 휘황한 포부의 설개도를 그리며 이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미래의 역군으로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미래가 웃는 땅 (4)

동해명승에 자리잡은 아이들의 궁전

점점 깊숙이 수장되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물속에서 살려달라고 마지막순간까지 목놓아 울 부짖던 아이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며 홀리던 그 피눈물, 눈을 편히 뜨고 죽어가는 자식들을 처절히 바라보며 원한에 차터뜨리던 부모들의 그 통곡소리가 아직도 귀전을 맴돈다.
북의 송도원에서 세계 일류급의 국제소년단야영소가 새롭게 개건되어 수많은 학생소년들의 행복

회와 비극을 파연 우연으로 불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세상과 세월을 골라서 태어날수는 없다. 꽃망울을 터치기도 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통곡하다가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가족들에 대하여 이남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바다물을 다 마셔버릴수 있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서 망망대해보다 넓고 큰 사랑의 바다를 목격한다. 그런 심정을 가진 이 땅의 어머

들이 바람부는 팽목항 부두에서 울음섞인 목소리로 다시 묻는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저 차디찬 바다속에 밀어넣었는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하지만 그 어머니들의 피라는 부르짖음은 이남 땅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어져버리고 말았다.
《아동천국》인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에 왔다가 그냥 가가에는 발걸음이 쉬어 떨어지지 않아 나는 방문록을 펼쳤다.
여기에 씌여진 모든 글들이 감동적이었지만 재카나다의 어느 한 동포가 쓴 글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부지의 규모도 세계적이고 명소로서의 위치도 세계적이며 그 운영과 질적내용도 세계적이다. 세상에 없으면서도 조선에는 있고 조선에는 있으면서도 세상이 아직 모르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을 누가 펼쳤는가.》
하기에 미국의 CNN방송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울여름에는 별찬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악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전하였다.
정녕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의 아이들만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찾는 아이들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이남의 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님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이 꽃피는 송도원의 대경사와 이남당국의 악정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진도의 대참사는 후대들에 대한 북과 남의 판이한 정책을 뚜렷이 보여준것이라고 하면서 이남에서 살아가는 또 언제 제2의, 제3의 《세월》호참사를 당할지 알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참으로 같은 시각에 송도원과 진도에 판이하게 펼쳐진 이 화폭은 아이들의 락원과 지옥에 대한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시간이가고 세월이 흘러도 두근두근 전영소를 소개하면서 《울여름에는 별찬 자식들을

관청에 온 촌담처럼 황홀경에 휩싸인 나는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황송하고 어리둥절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이게 과연 야영소인가 아니면 전설속의 궁전인가.—
이복을 다녀오는 동료들로부터 나는 북이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잘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살고있는 곳이 서방이어서 그런지 나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생소한 나라였기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지고 명당중의 명당자리에 솟아오른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직접 돌아보고는 말그대로 이상속의 아이들의 천국을 비로소 찾은 감이 들었다.
파연 동료들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다시금 느꼈다.
강원도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송도원은 오래전부터 으뜸가는 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진 명소이다.
그렇지만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소문난 곳도 사람이 떠나야야 무슨 가치감이 있으며 가꿔주는 손길 이 없다면 명소도 어찌 빛이 날수 있으랴.

점점 깊숙이 수장되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물속에서 살려달라고 마지막순간까지 목놓아 울 부짖던 아이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며 홀리던 그 피눈물, 눈을 편히 뜨고 죽어가는 자식들을 처절히 바라보며 원한에 차터뜨리던 부모들의 그 통곡소리가 아직도 귀전을 맴돈다.
북의 송도원에서 세계 일류급의 국제소년단야영소가 새롭게 개건되어 수많은 학생소년들의 행복

회와 비극을 파연 우연으로 불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세상과 세월을 골라서 태어날수는 없다. 꽃망울을 터치기도 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통곡하다가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가족들에 대하여 이남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바다물을 다 마셔버릴수 있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서 망망대해보다 넓고 큰 사랑의 바다를 목격한다. 그런 심정을 가진 이 땅의 어머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악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전하였다.
정녕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의 아이들만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찾는 아이들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그러기에 이남의 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님의 숭고한 미래사랑, 후대사랑이 꽃피는 송도원의 대경사와 이남당국의 악정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진도의 대참사는 후대들에 대한 북과 남의 판이한 정책을 뚜렷이 보여준것이라고 하면서 이남에서 살아가는 또 언제 제2의, 제3의 《세월》호참사를 당할지 알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참으로 같은 시각에 송도원과 진도에 판이하게 펼쳐진 이 화폭은 아이들의 락원과 지옥에 대한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시간이가고 세월이 흘러도 두근두근 전영소를 소개하면서 《울여름에는 별찬 자식들을



2014년 4월 이남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백명의 아이들이 단꺼번에 바다속에 수장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

◆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찾아서 ◆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문을 연 미래상점은 매일 찾아오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흥성이고있다. 얼마전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새로 일떠선 미래상점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두가닥의 일세에 정히 감싸인듯 아름다운 꽃송이마냥 부각된 전자자리길모형이 안겨왔다.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미래상점의 마크였다.

과학과 꽃송이, 깊은 뜻이 담겨진 특색있는 마크를 바라보며 세계를 딛고 오를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열정에 떠받들려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분이 아니었다. 지난

지구상에는 화려함과 사치함을 자랑하는 호화상점들이 적지 않다.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식 호화상점!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없고 자본주의 《문명》과 《향락》이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진정한 우월성과 참모습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은정을 전하며

만복의 열매로 이어질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송이를 그려보는 우리에게 안내하던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래상점의 마크를 몸소 보여주셨다. 미래상점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하늘같은 사랑이 뜨겁게 깃들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3월에는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돌아보시며 못내 만족하시어 태양과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렇게 솟아난 인민의 재부, 그렇게 마련된 인민사랑의 결정체였다.

들을수록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상점을 돌아보느라니 손님들의 편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꾸려진 특색있는 매대들마다에서 생활용품들을 마음껏 고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이 호뭇하게 어려웠다.

미래상점을 가득 채운 상품들마다에는 나라의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에 한하여 사업봉사기지를 따져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크나큰 은정이 깃들어있었다.

미래상점과 대칭되게 서있는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에서도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말해주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사회주의문명의 령마루를 향해 비약하는 앞길에 또 하나의 재부로 솟아오른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돌아보며 우리는 확신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따사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 작아진 우리의 앞날에 더 활짝 꽃피어갈 인민의 꿈과 리상을.

봉사기자 홍범식

특색있고 편리한 봉사환경

보통강반에 자리잡고있는 미래상점은 과학자들이 즐겨 찾는 상점이다. 상점안에 들어서서 특색있는 조명으로 우아하고 멋들어진 감을 자아내는 매대들을 돌아보느라면 상품진열이 구매자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되어있다는 느낌이 든다.

화장품매대와 기호품매대를 비롯한 매대들에는 상품들이 화려하면서도 품위있게 진열되어있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좋아하고있다. 향수매대에는 가느다란 종이띠를 놓아주어 손님들이 여러 종류의 향수의 냄새를 직접 맡아보며 마음에 드는 향수를 골라 사기도 하고 필기도구매대에서도 손님들이 필기도구를 골라보고 종이에 써보기도 한다.

황금빛갈의 윤기가 번쩍거리는 노트류제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가 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미를 갖춘 각종 형태의 가방들, 맵시있고 다양한 여러가지 구두들이 문수별로 진열대에 놓여있어 과학자들이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사기도 한다.

상점을 돌아보며 상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을 보는듯 한 감이 들고 은은한 빛을 뿌리는 조명과 빛도 사색하기 좋아하는 과학자들의 정서와 직업적특성에 잘 어울린다. 2층에 있는 매대들에도 상품들이 조화롭게 진열되어 현대미가 살아나면서도 화려하게 꾸려져있다. 수시로 떠오르는 과학적창상을 주석에서 련관시켜볼수 있게 국가망과 련결된 컴퓨터들이 놓여있는 정보봉사실도 있어 과학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새로 나온 과학잡지들을 열람하면서 과학자들이 토론도 할수 있는 면담실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상점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이다.

미래상점에 꾸려진 모든것이 과학자들의 사색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봉사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친절한다.

종합봉사기지에 들어서서 안내관앞에서 무엇부터 할것인가 순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놀이장부터 먼저 가자고 부모들의 손목을 잡아끄는 아이들도 있다.

이곳에서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종합봉사기지는 목욕탕과 물놀이장, 안마실, 미용실, 리발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미래상점의 맞은편에 자리잡고있는 마치 강물위에 두둥실 떠가는 유람선을 방불케 하는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절로 흥그러워지게 한다.

이곳에서도 과학자, 기술자들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종합봉사기지는 목욕탕과 물놀이장, 안마실, 미용실, 리발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어디서나 연해연방 웃음소리와 환성이 터져오른다. 맘을 훌쩍 훌리며 한층을 하고나서 수조에 뛰어들어 덕수를 맞으니 삼시에 피로가 쭉 풀리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즐기며 물놀이장에서 시간을 즐겁고 보냈고 즐기니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제제》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역세계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속도로 될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자기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제제》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역세계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속도로 될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자기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

봉사기자 류현철



어디서나 연해연방 웃음소리와 환성이 터져오른다. 맘을 훌쩍 훌리며 한층을 하고나서 수조에 뛰어들어 덕수를 맞으니 삼시에 피로가 쭉 풀리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온 가족과 함께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즐기며 물놀이장에서 시간을 즐겁고 보냈고 즐기니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머 저마다 떠들썩한다. 1층의 편의시설들에서 봉사를 받고 선남선녀가 되어 나온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뜨한 마음으로 2층에 올라오면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식사실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는 음식들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3층에 꾸려진 차매대에서 차를 마시며 즐겁게 담소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몇 안되는 특권계층들이나 누릴 이런 문명이 공화국에서는 근로인민의것으로 되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배》-종합봉사기지는 문명한 미래를 속삭이며 락원의 강, 보통강물결을 기세좋게 헤가르고있다.

봉사기자 김철호



우리 집은 려명거리건설이 한창인 룡흥네거리의 가까이에 위치하고있다.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몰라보게 달라지는 건설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저녁시간이면 창가에서 건설장의 모습을 바라보는것이 어느새 우리 가정의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벌써 건설장에서 샅뽀기초공크리트리치가 끝나가고있지만.》

《옛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내고 그 많은 버력을 어느새 치웠는지 인민군대가 일하는 본래가 달라요.》

《어머니, 저기서는 벌써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애의 이야기를 들노라니 온 건설장에 타오르는 립체전, 전적전의 불길속에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방대한 기초굴착공사가 99%단계에 이르고 기초공크리트리치가공사가 70%계선을 돌파했다던 신문기

단상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의 내용이 떠올랐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한달밖에 안되는 기간이었지만 군인건설자들의 단숨에의 기상은 놀라기만 하였다

적대세력들은 지금 《초강도제제》에 이어 《추가제제》, 《더 강한제제》를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의 도수를 날로 높여가고있다. 그런 속에서 방대한 려명거리건설을 기어올해안어 일념으로 모두가 떨쳐나섰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참가하였던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이곳으로 달려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이고있다. 지원자들도 려명거리건설에 한몫하고싶다며 하루일을 마치고 야간지원돌격대를 무어 건설장

으로 달려나온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로 하여 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뿔뿔이 되고있다.

밤은 깊어가고 대낮같이 환한 건설장에서는 기중기소리, 팔채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소리, 호각소리, 전투원들을 고무하는 경계선동의 힘찬 목소리, 걷는것도 성차지않아 뛰고 또 뛰는 건설자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회열에 넘쳐 웃고 떠드는 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밤을 모르는 건설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정녕 래일의 행복이 마중오는 소리였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공화국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적들의 《제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전진의 힘찬 동음이였다. 또한 우리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놈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안기는 승전고소리였다.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녹색거리에서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으로 조명과 난방문제를 해결한 현대적 아파트에

서 살게 될 그날이 금시라도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만 같다. 《대조선제제가 효과를 낼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고있는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면 누구든 려명거리건설장에 와보라. 그러면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제제》가 이기는가, 자강력이 이기는가. 이곳에 건설되는 려명거리는 적대세력들의

서 살게 될 그날이 금시라도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만 같다. 《대조선제제가 효과를 낼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고있는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면 누구든 려명거리건설장에 와보라. 그러면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제제》가 이기는가, 자강력이 이기는가. 이곳에 건설되는 려명거리는 적대세력들의

서 살게 될 그날이 금시라도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만 같다. 《대조선제제가 효과를 낼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고있는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면 누구든 려명거리건설장에 와보라. 그러면 명백히 알게 될것이다. 《제제》가 이기는가, 자강력이 이기는가. 이곳에 건설되는 려명거리는 적대세력들의



현혜경

세계가 지켜보는 조선

올해의 첫 시작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충격적인 특대사변들이 련쇄적으로 일어나 지구를 뒤흔들고있다. 밤새 또 어떤 충격적인 사변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조선의 《로동신문》부터 보는것이 조선문제전문가들의 하루일과로 되고있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핵보유국

지난 1월 6일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이어 미국본토도 한순간에 날려보낼수 있는 막강한 핵타격수단들의 공개로 하여 세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수습선에 걸치는 《제재》와 압박, 포위환속에 들어있는 작은 나라 조선이 정말 수소탄 시험에서 성공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미정보당국과 일본원자력규제청이 방사성물질농도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소형화된 수소탄 시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시기 공화국의 핵능력에 대하여 무작정 부인하기만 하던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해리리저 재단을 비롯한 주요정책 연구기관들은 《북조선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장거리 미싸일에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공인하였다.

존스 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도 《북조선이 소형핵폭탄과 같아 수륙 정교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사실상 많은 나라가 암묵적으로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부총국장 올리 하이노넨, 전 미국무성 6차회담부대표 데트라니를 비롯한 전직 당국자들도 공화국이 공개한 핵탄을 보고 《북조선은 핵무기소형화에 성공한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이 소형화된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세계적으로 몇안되는 수소탄 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확증해주는 것이다.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까지 발동하여 그 무슨 규탄성명에 이어 유엔 《결의》 2270호

다.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으로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고 공화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를 발표하였다. 이에 공화국은 자기 식의 합리적인 혼합장약구조로 설계제작한 경량화된 고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를 공개하고 탄도 로켓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시험을 진행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들을 《모조품》이라고 부정하고 미싸일타격능력이 큰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리던 미국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의 《군축전문블로그》발행인이며 메릴랜드 대학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인 제프리 루이스박사는 《죽음의 지도가 현실이 되었다.》고 고백하였고 미북부사령관 윌리엄 고트니도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싸일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핵탄두를 미국본토의 많은 지역에 보낼수 있는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싸일은 미국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미국의 발사전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킬수 있다.》고 비명을 올렸다.

미국의 대조선전문가들도 《북조선은 이미 핵무기운반체인 1단, 2단추진체개발은 물론 최장거리의 3단, 4단추진체도 순수 자체로 개발하였다.》, 《북조선의 수십년간의 핵개발기간과 핵기술연구 집단의 능력, 수차례에 걸친 지하핵시험 및 추진체발사시험, 소형화된 핵탄의 적극적인 공개 등을 고려할 때 북조선은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이다.》고 평가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이 미국본토를 한순간에 날려보낼수 있는 수소탄과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무시할수 없는 군사강국임을 적대세력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음을 명백히 실증해주는것이다.

최근 공화국에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증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미싸일전문가 존 실링 연구원은 《탄도탄수증시험 발사는 성공적이며 발사속도도 음속을 초과하였기때문에 완전히 성공한것이다.》, 《북조선이 이번 시험에서 기존의 액체연료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했것은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것》이라고 말하여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의 생화학, 핵, 방사능무기전문 선임분석관 칼 듀이도 같은날 미국의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고려하는 국가는 이를 주저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조선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본토나 해외군사기지가 북조선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에 의

독자적인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능력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결에서 굴하지 않고 자강력제일주의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수십여년간의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고 자기의 자원에 의거하여 세계에 자랑할만 한 창조품들을 내놓고 최첨단과학기술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성공시킨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만 해도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기술로 알려진 첨단화상진단설비인 라선식뇌CT를 완전히 자기의 기술과 설계로 개발하고 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기초기술로 되고있는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포전전자지도와 위성화상해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농업부문에 받아들여 과학농사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그 어떤 기후조건과 자연해해에도 끄떡없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줄수 있는 확고한 담

해 핵미싸일공격을 받을수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북이 잠수함탄도미싸일발사시험에서 성공하고 탄도미싸일에 탑재할수 있는 소형화된 수소탄시험에서까지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를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은 세계최고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싸일 기술을 확보하고있다.》, 《북은 소형잠수함에서도 탄도미싸일을 수중발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세계가 조선이 당당한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군사강국임을 인정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에서 쏟아져나오는 《제재》포악들은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그를 막아내지 못하는데 한한 갓 뺨풀이여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발파작업의 편리성, 정밀성 등을 높이면서 도 원가가 낮은 첨단무선 발파기공체계를 완성하여 발파진동을 50~60% 감소시키고 발파효율을 95%이상 높이며 갱도굴진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 년산 수백(능력)의 첨단기능성종이생산공정이 훌륭히 꾸려져 여러종의 기능성종이제품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공화국에서 오늘의 자력갱생은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최첨단들과의 정진이다. 세계적으로 국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첨단기술을 독점하고 세계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조건에서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들이 최첨단을 향하여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모든 면에서 패권을 쥐는 바로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이 있

는것이다. 공화국이 올해의 정월 초하루날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으로 최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길 결심을 온 세상에 과시한것은 과학의 기관차로 사회주의를 전진시키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또한 세계최고수준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9축선삭가공중심반제작에 성공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첨단제품생산에서 세계에 자랑할만 한 최첨단 《어미기계》를 만들어 낸 공화국이다.

지금 공화국의 우주개발 전망에 대해 다른 나라의 출판물들이 《발전된 조선의 과학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다. 우주기술, 위성발사기술, 핵기술 등 분야에서 조선은 세계의 몇안되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이다.》고 찬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옹당하다.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은 《북은 선진 우주강국들이 독점한 연료공학기술뿐만아니라 높은 고열과 고압, 부식에 견딜수 있는 특수합금야금 기술, 복잡한 설계와 제작, 조립공정을 거치는 로켓기공도 자체로 개발함으로써 로켓제조부문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룩하였다. 또한 운반로켓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공학기술과 컴퓨터공학기술에 있어서도 북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북은 핵공학기술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날 우주개발기술과 핵공학기술은 첨단기술이며 이 두 가지 첨단기술을 자체로 개발한 과학기술강국들이 세계의 패권을 쥘수 있다. 그런데 북이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봉쇄와 제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자력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라고 자기의 글에서 썼다.

군사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에서만 보 유하고있는 대기권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상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기공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나라의 방위력과 군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위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

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은 자강력 제일주의에 기초하여 최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령도자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행성의 위대한 수호자, 현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 노교육재단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커다란 공헌을 하신 원수님께 《수카르노의 별상》을 수여해드리었다. 영국언론 《가디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젊은 인물 10명을 선정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1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영향력있는 젊은 인물선정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대서특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꼽고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맞대결을 벌리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는 사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상 리론, 군사전략기술, 건축, 과학,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사실, 특히 그이의 담력과 배짱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웁은 말이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의 대조선전문가들은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외교전략과 전범이 대내외환경에 대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라산, 실존적 위력에 대한 자신감에 충분히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련승으로 이어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은 10대에 GPS를 리용한 포병체계구상을 완성했다고 한다. 매우 무서운 구상이다. 북의 모든 포무기에 GPS를 접목시키게 되면 거의 오차를 1m이하로 줄일수 있다. 상대의 힘을 리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매우 위력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첨단기술에 대한 리해가 깊지 못했다면 생 각할수 없는 발상인데 그것을 10대에 포병체계에 적용시켰다니 놀랍다.》고 밝혀 여론의 주

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목을 끌었다. 하기에 적대세력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하고 걸출한 령도력을 레사롭게 볼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현대정보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북령도자》라고 하면서 아우성치고있다. 공화국에서 진행된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를 놓고 서방언론들은 《북조선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위협효과를 극대화하는 고도로 치밀한 전략에 의한 핵시험과 위성발사였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김정은령도자가 티로를 아예 막아놓고 물아내고있어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지금 세계의 도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장장 수십년을 이어오는 조미대결이 공화국의 승리로 끝날것이라고 확신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천하를 뒤흔드는 담력을 지니신 김정은령도자께서 미국에 핵선제타격을 경고하신것은 장장 수십년을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끝장내고야말 총결산의 의지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조선과 미국사이에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이 승리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강조하였다.

70여년에 걸치는 조미대결이 끝장을 볼 때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가 예상하바와 같이 그 결과가 공화국의 요구에 단지 미국이 순응하는것으로만 끝나지 않을것이라는것으로 하여 더욱 흥미를 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국 지배의 종말과 《유일초대국》의 사멸 그에 반해 조선을 중심으로 모든것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정치력학구도로 새롭게 재편성될것이라는것이 세계가 지켜보는 조미대결의 결과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신형대구경방사모



새형의 반항공요격 유도무기체계



탄도로켓 대기권재돌입 환경모의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대출력발동기지사분출시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증시험발사

《유신》 시대에 갈려는 정치불운아

남조선민심이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린 20대 《국회》의원선거는 비운과 절망으로 가득찬 박근혜의 앞날을 방불하게 그려보여주었다.

임기는 1년 10개월 남았다지만 벌써부터 《권력루수》 현상에 빠지고 사실상의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 박근혜의 초라하고 가궁한 모습.

《선거의 여왕》답게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옷을 입고 투표장에 나타났던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간곳없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색도 거무스레해진 박근혜를 보며 요새 북악산자락에서는 까마귀들의 음산한 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이런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 했던가.

박근혜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것은 운수가 나빠서도 아니요, 그 누구탓도 아닌 오직 제가 한 행동으로 자기에게 차려진 필연적응명이다.

박근혜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원인중의 원인을 찾는다면 지금껏 죽은 제 예비를 따라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박정희와 박근혜가 정치를 한 년대들은 많은 시공간적차이를 두고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아득한 시공간적차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의 머리에는 없다.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그는 지금이 《유신》 시절과 같은줄로 착각하고 정치를 예비가 하던 그

때처럼 마구 해대고있다. 아는것도 없고 창조도 없고 남이 해준 말을 수첩에 베껴 되받아외우기만 하는 박근혜에게는 정치적재산이라는것이 예비가 물려준것밖에 없다. 젊어서 예비를 졸출 따라다니다 보고 듣고 배운 그것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령부인》 행세를 하며 눈에 익힌 예비의 천박한 《통치술》밖에 없는 박근혜의 머리속에 지금도 파리를 틀고있어 있는것은 자기 뇌수가 아니라 죽은 박정희이다.

몸은 해사한 박근혜이지만 속을 벗겨보면 이미 오래전에 저세상에 간 박정희인것이다.

독재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를 남조선인민들은 총에 맞아 튼튼 불행한 독재자로, 오래전에 화석화된 시대의 퇴물로 치부할 따름이다.

이런 과거의 독재자가 박근혜의 머리속에는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남조선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있는것이다. 그때문에 박근혜가 하는것을 보면 신통히도 박정희를 보는것만 같다. 정치도 박정희시각배정치요, 하는 일이란 예비의 《치책》 따위나 광고하여 역사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유신》 독재자를 부활시키려는 놀음들뿐이다.

박근혜가 예비가 출생한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지구 《생가》와 《민중총동원》을 꾸리고 추모제를 벌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5.16쿠데라 당시 얼마간 있었던 서

을 신당동 살림집주변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박정희기념관》 건설에 300억원이라는 혈세를 탕진한것을 비롯하여 《박정희기념사업》에 1900억원을 뿌려 사람들을 아연케 한것은 세인이다 아는 사실이다. 오래전에 박정희가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고 속이며 백성들을 들볶아 원성만 사게 한 《새마을운동》이라는 남아빠진 유물이 뭐가 그리 신통해서인지 박근혜는 아프리카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이 《운동》을 전수한다고 부산을 피워대고있다.

지난해 박근혜가 온 남녘인민들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밀어부친 력사교과서 《국정화》 놀음도 사실은 친일매국과 독재의 대명사인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한 놀음이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 해도 옳은것이면 들으라고 하였다.

박근혜가 《대통령》 병거지를 쓴 이후에도 제 머리는 없고 예비따라하기에만 열중하여 청와대의 참모들속에서도 《박근혜의 의식수준이 1970년대 시절에 머물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백성들의 가냘픈 돈주머니나 털어내며 오래전에 사라진 《유신》 시대를 되살리기만 하는 년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질타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예비를 닮아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하는 늙은 청와대 안주인은 여론의

규탄같은것은 애당초 귀 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제 예비를 이상화하고 배운것은 그의 통치술 뿐이니 달리 될수는 없겠지만 박근혜는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유신》 독재자가 력사의 뒤길로 사라진 때로부터 30여년, 그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세기도 바뀌어졌다.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몰라보게 변했는가.

남조선과 한지맥으로도 놀랄만 한 전변의 력사가 흘렀고 지금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화하고 비약하고있다.

그 30여년동안에 북남관계에서는 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가. 박정희가 높이 쌓았던 대결과 분렬의 콩크리트장벽을 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화해와 통일의 물결이 흐르지 않았던가.

박근혜는 이런것을 하나도 보려 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 그려져있는 박정희그림만을 절대시, 우상화하면서 그 그림과 맞지 않는것은 덮어놓고 다 부정하고 배척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말만 나와도 감옥에 처넣었던 예비처럼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탄압해왔는가 하면 언론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해외에서 자기를 비방했다고 하여 전 중앙정보부장을 랍치하여 살해한 포악한 《유신》 독재자처럼 박근혜후보

를 떨어뜨리려고 선거에 나왔다든 야당후보의 말에 앙심을 품고 집권하자마자 그가 속한 당을 강제 해산해치우는 파썸당도 저질렀다.

생존권, 일자리를 요구하여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벌리는 정당한 파업과 시위투쟁도 《불법》으로 몰아 가차없이 짓밟기는 박근혜식독재통치도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여기며 찍 단리거주의》로 몰아 최루탄을 들썩우고 곤봉을 휘두르던 예비의 파썸당기대로이다.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렸다. 박근혜역시 제 민족이 얼마나 귀한지, 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세가 떠드는대로 《북핵포기》, 《란도르케트발사중지》 등을 넘벌처럼 외위대고 있다.

《유신》 대결광이 북조선주민들은 빨갱이몰이 들어 눈이 빨갛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승공통일》의 환상에 젖어있었다면 오늘날 것 말년은 북이 인차 망할것처럼 착각하면서 《체제붕괴》, 《체제통일》 놀음에 푹 빠져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일본왕에게 충성다하는 혈서를 쓰고 조선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도발》에 혈안이 되었으며 쿠데타로 권력을 쥔 후에는 친일매국의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던 예비의 친일

매국기질을 이어받아 박근혜도 친인공노할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고 재침에 혈안이 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쓸개빠진 매국행위에 미쳐돌아가고있다.

보는것처럼 현재의 살아있는 몸뚱이는 박근혜이지만 그의 몸을 지배하는 정신은 죽은 박정희이다. 치마입은 《박정희》가 2016년에도 남조선을 주무르는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시대는 변했는데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유신》 독재시대에 갈려는 답답하고 불쌍하고 력사퇴행적인 박근혜는 오래전에 예비의 황천길을 따라갔어야 제격일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는 박정희의 《령부인》이 아니었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유신》의 랑기를 뿜어대며 력사를 거꾸로 돌리려고만 하니 일이 제대로 될수가 없고 하는 일마다 뒤죽박죽이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시대는 모든것을 망가뜨리고 모든것을 죽이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자체가 말하는것처럼 《정치는 불통》, 《경제는 강통》, 《국정은 먹통》, 《민중은 분통》, 《서민은 고통》인 《5통》이 만연한 죽음의 세상이 되고 만것이다. 민주주의시제도 1970년대로 돌아가고 개성공업지구마저 내놓아 북남관계는 7.4성명이전의 차디찬 대결시대로 되

돌아가버렸다.

이게 뉘 탓인가. 다 박정희사고에 갈려 예비따라하기놀음만 해온 박근혜의 탓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대참패는 이런 박근혜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더이상 그가 읊조리는 메스꺼운 《유신》의 《시》를 듣지 않겠다는 결별선언이고 박근혜를 제 예비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라는 사망통지서이다.

성격이나 취향, 리념, 통치방식 그 어느것을 보나 우리 시대에 더이상 같이 살수 없는 인물이고 민족과 함께 있을수 없는 존재이니 진보이긴, 중도이긴, 보수이건 그를 시대밖으로 내던진것이다.

세상만물의 발전은 변화를 전제로 한다. 변화가 없는 정치는 곧 퇴보이고 죽음이다.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박근혜는 오늘도 옛날그대로의 박근혜이다.

민심은 변화를 갈망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진정한 변화, 그것은 《유신》 시대에 갈리워 파썸과 동족대결의 길로만 출달을치는 박근혜의 폭정을 끝장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수 있다.

늘어빠졌어도 여전히 예비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못난이를 《귀물함》에 넣어 동작동에 누워있는 예비의 곁으로 가서 떠나보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유인람치의 진상은 가리울수 없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박근혜역적패당은 얼마전 중국 절강성 녑파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공화국의 여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는 전대미문의 특대형테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랑복한 침해이며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일 인민문화대전에서는 남조선당국의 집단유인람치만행을 폭로규탄하는 피해자가족들과 목격자들의 국내외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먼저 남조선정보원장들의 유인람치만행의 목격자들인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해외에서 우리 여성종업원들이 남

조선정보원놈들의 모략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으로 끌려간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박근혜역적패당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행한 조직적인 유인람치행위이라고 증언하였다.

봉사조장이었던 최례영과 봉사원이었던 장수련, 신성아는 놈들은 우선 금전에 환장하고 패륜아로 전락된 식당책임자놈을 울가미를 씌워 매수한 다음 놈을 리용하여 우리 처녀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람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갈 음모를 꾸미었다, 그리고 사전의 치밀한 계획 밑에 이미 식당뒤문에 차까지 대기시켜놓고있다가 먼곳으로 교대봉사근무를 가야 한다고 어린 처녀들을 꾀어넘기였으며 비행기안에서도 그 무슨 《남조선에서 일할데 대한 특수임무》요 뭐요 하고 그

들을 속이었다,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은 남조선정보원의 반인륜적인 모략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단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자기 동무들을 유괴하기 위해 백주에 인륜도덕을 무참히 짓밟고 국제법도 랑복하게 위반하면서 이런 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놈들이 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이고 무지막지한 국제강패들이라고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은 짐승도 낮을 불힐 이번의 치명적인 만행이 박근혜 역적패당의 계획적인 유인람치행위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기자회견장은 자기의 귀한 딸들을 인간생지옥에 처넣고 생리별의 뼈아픈 고통을 강요한 악귀들

을 단죄하는 피해자가족들의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로 하여 더욱 끓어번져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딸들은 조국과 부모형제, 정다운 동무들과 고향을 배반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또 절대로 버릴수도 없다, 설혹 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갔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그들을 독감병에 따로 가두어놓고 자기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우리 부모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하게 하는가, 서울에 가서 자식들을 직접 만나서 자식들의 요구라도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이 비열하고 치졸한 집단람치극으로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공화국국민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감히 와

해시키려고 날뛰고있는데 그따위 서푼짜리 대결모략광대극에 놀랄 자식들이 아니라 하면서 국내외기자들이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악행을 저지른 역적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 자기 자식들을 송환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줄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비법적이며 반인륜적인 랍치만행의 진상은 그 어떤 꾀변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은 이 하늘가에 사무치는 피해자가족들과 목격자들의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들을 귀를 기울이고 이제라도 저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 심중히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랍치해간 공화국국민들을 당장 공화국의 품, 혈육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언론이 조소

남조선의 《뉴시스》가 4월 28일 《정부는 일손 놓고... 한숨 커가는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민해패당이 최대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대하여 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청와대의 한숨 소리가 커가고있다고 하면서 총선거에서의 참패로 여당은 지리멸렬상태인데다 야권은 《정부》의 중점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섰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립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있다고 같은 조소하였다.

같은 4월 26일 박근혜가 언론계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개혁추진의 필요성을 운운하였는가 하면 력사교과서 《국정화》강행을 재확인하고 《세월》호 특별법개정움직임을 반대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박근혜의 억지주장에 야당들이 맞대놓고 거부의사를 밝히며 당장 력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세월》호특별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

을 놓고있다고 같은 지적하였다.

같은 이런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을 뒤받침하기는커녕 제 발동에 붙은 불을 끄기에도 바쁘다.

박근혜가 간담회를 가지던 그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인물들이 《총선》참패의 책임을 두고 격론을 벌이며 《네 탓》 싸움에만 몰두했다.

28일에는 친박계 내부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출마강행 목소리가 부딪쳤다. 친박, 비박계 파간 다툼을 넘어 이제 같은 편끼리도 의견 충돌을 빚고있는 형편이다.

《임기말 증후군》이 때이르게 나타나는 셈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가득이나 힘이 빠진 박근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가고있다.

본사기자



대결약녀의 끝수없는 낙두리

동족대결에 환장한 박근혜가 때없는 낙두리질로 세인을 경악시키고있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입만 벌리면 동족을 모해하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악담질만 하는 박근혜가 지금에 와서는 그 무슨 《통일초석마련》이라는 역겨운 소리까지 늘어놓고있다.

지난 3월말 《핵안전 수뇌자회의》에 참가한 박근혜는 《어떤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가마속의 소대거리도 깜짝 놀랄 낙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지난 4월 29일 청와대에서 먹자판을 벌려놓고서는 《지속되는 북의 핵, 미사일도발위협상황을 단순히 위기상황을 넘기기 위한것이 아니라 《한》 남조선전역을 북침핵전 반도비핵화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떠벌이었다.

역도의 《통일초석마련》 낙두리야말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시며 핵억제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공화국의 드높은 기세에 질겁한 정신병자의 얼빠진 낙두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반통일약녀의 역겨운 케번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은 거례와 민심의 규탄배격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눈앞에 두고있는 박근혜가 그 무슨 《통일의 초석》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제 주제도 모르는 천하 바보, 산송장의 푼수없는 추태이다.

박근혜의 지나온 행적은 조국통일의 초석은커녕 이미 마련되어있던 기초마저 모조리 파헤쳐버리는 망동으로 일관된 최악의 행적뿐이다.

사적으로 가로막아왔다. 바로 통일의 초석이며 장차 70여년간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다.

허황하고 어리석은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통일초석마련》과 같은 어리석은 나발들을 계속 늘어놓고있는 박근혜에게 도를 두고 사람들은 지금 《북의 위력에 질겁한 로망한 로친의 푼수없는 입질》, 《치매증말기환자의 마지막몸부림》, 《동족대결에 몰두하다 끝내 정신이상 온 박근혜》 등의 야유조소를 멈추지 않고있다.

박근혜는 동족을 모해하고 민족의 통일년원을 우롱하는 자기의 한마디 한마디 나발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기의 승통을 찌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은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하고있는 조국통일3대현장과 북남공동선언들이

바로 통일의 초석이며 장차 70여년간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다.

허황하고 어리석은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통일초석마련》과 같은 어리석은 나발들을 계속 늘어놓고있는 박근혜에게 도를 두고 사람들은 지금 《북의 위력에 질겁한 로망한 로친의 푼수없는 입질》, 《치매증말기환자의 마지막몸부림》, 《동족대결에 몰두하다 끝내 정신이상 온 박근혜》 등의 야유조소를 멈추지 않고있다.

박근혜는 동족을 모해하고 민족의 통일년원을 우롱하는 자기의 한마디 한마디 나발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기의 승통을 찌르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적민권지하수인의의비참한구걸행각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속에서 얼마전에 있는 박근혜의 이란행각을 두고 민중이 씩대끝에 올라간것처럼 우쭐해서 별의별 해괴한 목소리들이 다 울려나오고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이번 행각으로 《북이 외교적으로 고립》됐다느니, 《북핵 반대공감을 형성》했다느니 뭐니 하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가 하면 보수언론들도 《북도림성파》니 뭐니 하며 덩달아 춤을 추고있다.

명백히 말하건대 박근혜의 이번 이란행각은 동족을 해치기 위해 서하면 앗을자리 설사 리도 모르고 헤덤비는데 청와대창녀의 사대매독증이 또다시 발작한 구걸행각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집권후 지금껏 해외에 나가서 한 짓이란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만나는 사람

마다 입에 게거품을 물고 동족을 헐뜯고 대결과 전쟁을 선동한것뿐이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열렸던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데 머리를 들이밀고 《핵없는 세계는 《한》반도에 서 시작되어야 한다.》느니,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유일한 수단은 제재와 압박》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동족대결광증을 부린것도 다름아닌 박근혜이다. 그것도 모자라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국제공조》를 청탁하느라 신발창이 닳도록 미친듯이 돌아치는 박근혜에게 온 겨레가 《미국산 앵무새》, 《미국산 살살개》라는 명칭을 달아준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박근혜의 이란행각이 그 무슨 《성과》라도 거둔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국제판례의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는 아전인수격의 불꽃사나

운 추태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이란측 태도를 대북문제에 대한 무조건적지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제후에 겨워 들떠있는 당국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야유조소하고있다.

결국 박근혜의 이번 이란행각은 거짓말과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등신외교》, 미국의 주구라는 조소와 비난밖에 받은것이 없는 팔삭둥이의 구걸행각이 아닌것이 명백하다.

박근혜가 동족대결과 《체제통일》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아무리 싸다녀도 그의 싸구려 목청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로 인해 얻어놓은 수치와 조소뿐이다.

차라리 그럽바에는 얌전하게 청와대안방에 가만 앉아라도 있는 것이 모욕과 수치를 면하는 현명한 처사임을 박근혜는 알아야 할것이다.

리어금

최지은자들의 공포심리의 발로

버럭이도 낮짝이 있다고 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해외에서 일하던 공화국공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람치만행을 합리화하고 저들에게로 쏘리는 내외의 비난여론을 북에 돌려보려고 비렬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그들이 최근 《장백교회》 목사피살사건이니, 《120명에 대한 집단람치계획》이니 하며 벌리고있는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그 단적실례이다.

하는 행동짓 하나하나가 다 비렬하고 말하는것도 사람의 입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더럽고 치사한 망발들만 내뱉는 남

조선당국만이 할수 있는 노릇이다.

이미 다 아는것처럼 세상을 경악케 한 남조선정보원의 공화국주민집단유인람치행위는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무지막지한 강대행위로서 류례없는 반인권적범죄행위이다.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한낱한시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을 강제로 갈라놓은 남조선당국의 천추에 용서 못할 대외악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하며 징벌의 날창을 서리차게 버리고있다. 이에 당황한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그들의 자유의사》이니, 《집단기순》이니 뭐니 하는 말까지 않는 소리를 쳐대면서 내외여론을 기만하다 못해 《장백교회》 목사피살사건이니, 《120명에 대한 집단람치계획》이니 뭐니 하며 또다시 공화국을 걸고드는 랑설을 퍼뜨리고있는것이다.

에로부터 최지은자는 발언을 못 잔다고 하였다. 따지고보면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드는 《장백교회》 목사피살사건이니, 《람치》설이니 하는것들은 다 천인공노할 죄를 짓는 범죄자들의 불인과 공포심리의 발로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부디 떨 필요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드는 《자유의사》이니, 《귀순》이니 하는것들이 다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해보겠다는 케번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은 이것으로도 더욱 여지없이 증명되는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의 징벌이 무서우면 저들의 치떨리는 반인륜적 랑치범죄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유인람치해간 공화국 주민들을 하루빨리 그리운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유엔의 대조선 <제재> 는 왜 부당한가》(1)

미국정치평론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가 얼마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유엔의 대조선 <제재> 는 왜 부당한가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미국화》이다-》라는 제목으로 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단죄하는 논평을 올렸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북조선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여러기의 위성들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 미국은 이것을 은폐된 《미사일발사》로 락인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미국은 새형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냈으며 저들의 핵무기기를 유지현대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소비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나라들은 수많은 위성들을 쏘아올렸고 어떤 나라들은 장거리대륙간도미사일 시험을 하였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들이 자기의 탄도기술을 시험하고 핵병기기를 강화해나가고있는데 왜 북조선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3월 북조선에 적용한 《제재결의》는 그 어떤 합법적근거도 없는것이다.

포위속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진행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기의 위성들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 미국은 이것을 은폐된 《미사일발사》로 락인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군장성들이나 신문들도 다같이 인정한 사실이다. 북조선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였기때문에 핵기술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국제적 의무의 구속으로부터 제외되고있다.

지난 2월 북조선이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하여 리용한 로켓가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라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보유포는 시험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로켓기술을 리용하고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도 다그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있으며 그들중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나라들은 침략자를 제압하고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핵병기기를 유지하고있다고 한다.

북조선은 저들의 핵무기가 순수 방어적성격을 띤다고 하였으며 그 주장은 믿을만 하다.

미국은 북조선에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하고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왜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북조선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및 상용무기공격 위협에 직면해있다.

-1993년 미전략군 사령부는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일부가 북조선을 겨냥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2002년 부위행정부는 리비아, 수리아, 중국, 로씨야,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조선을 잠재적인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미국의 공개정치연구소인 스타트스센터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북조선에 핵으로 없애치우겠다고 6차례나 위협하였다.

-한때 미국부장관 포웰은 미국이 북조선을 재가부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특히 부위가 이 나라를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킨것은 사실상 북조선에 선전포고를 한것이거나 마찬가지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가 허위증거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강점당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

할때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어놓고있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라크는 그 압력에 못

이겨 보유하고있던 대량살상무기기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리용한 위싱턴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북조선은 1985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조약에 따르면 계약국들은 핵무기축감과 관련한 협상에 성의있게 리할 의무를 지닌다.

조약은 계약국들을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들로 구분하고있다. 조약의 서문은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힘의 위협을 하지 말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유엔헌장에 부합되게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다른 국가의 영토완정, 정치적 독립에 대한 힘의 위협을 한다고 규제되어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할때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어놓고있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라크는 그 압력에 못이겨 보유하고있던 대량살상무기기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리용한 위싱턴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이제 보유하고있던 대량살상무기기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리용한 위싱턴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수 없었다.

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할것이다.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한 회한한 언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들은 저들의 핵무기를 현저히 줄이기 위한 그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핵군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다시말하여 유엔헌장에 명기된 국제관계에서 군사적위협을 배제할때 대한 내용은 흔히 무시되고있다. 1993년에 미전략군 사령관은 이전 쏘련을 겨냥했던 저들의 일부 핵무기들을 북조선으로 돌릴것을 라고 하였으며 그때로부터 1개월후 평양은 만약 위싱턴의 위협이 기정사

실로 되는 경우 이에 대처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협상들이 진행되었다.

2002년 1월 부위가 북조선에 《악의 축》으로 지명한 후 평양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 의향을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위의 선언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위싱턴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위협에 비해볼 때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북조선은 미국이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저들의 목적성현에 방해가 되는 임의의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을 저어하지 않겠다는것을 보여준 부위 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을 거두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정당화하였다.

본사기자